

# 베트남인의 한국 의료관광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염영희<sup>1</sup> · 김명애<sup>2</sup>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sup>1</sup>, 중앙대학교 대학원<sup>2</sup>

##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of Vietnamese to Use Korean Medical Tourism

Yom, Young-Hee<sup>1</sup> · Kim, Myoung Ae<sup>2</sup>

<sup>1</sup>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up>2</sup>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Vietnamese customers who use Korean medical and tourism services. The study was based on the Anderson Models **Methods:** Participants were 173 Vietnamese who were living in Ho Chi Minh and Hanoi in Vietnam.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hi^2$ , t-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Research necessary factors ha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among the preceding factors, possible factors and necessary factors. Human service and outstanding natural beauty of necessary factor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customer intention to us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epwis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most important item in medical services was human service OR=1.89 ( $p=.014$ ), and for tour services, outstanding natural beauty OR=4.30 ( $p=.033$ ). The explained variance for customer intention to use was 91.9%.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to improve the human service and outstanding natural beauty to retain customers' intention to use.

**Key Words:** Medical tourism, Intention, Health services need and demand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관광은 첨단 의료시설과 기술을 기반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치료와 함께 관광을 연계하는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도 집중적인 투자와 홍보를 하고 있는 분야이다[1]. Goodrich와 Goodrich[2]는 의료관광을 '건강과 관련한 서비스나 시설을 의도적으로 홍보

하여 관광객을 유인하는 관광시설이나 목적지'로 정의하였다. 현재 한국은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장기이식, 암 관련 수술, 치료 분야에서 최신 의료기술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첨단 의료장비를 보유한 병원들을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국가 브랜드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한류가 강점으로 작용하면서 의료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의하면[3] 한국을 방문하는 의료관광객 수는 2012년 159,464명, 2013년 211,218명, 2014년 266,501명으로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요어:** 의료관광, 이용의도, 의료서비스 필요 및 욕구

**Corresponding author:** Kim, Myoung-A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06911, Korea.  
Tel: +82-2-820-5700, Fax: +82-2-824-7691, E-mail: secretkim@daum.net

- 이 논문은 2014년도 중앙대학교 연구 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Chung-Ang University Research Fund.

Received: May 22, 2016 | Revised: Jul 22, 2016 | Accepted: Jul 22,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4]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방문객 수가 총 진료수입이 2012년 188개국 2,673억원, 2013년 191개국 3,934억원, 2014년 191개국 5,569억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 방문객 중에서 관광, 유학 및 연수 등으로 입국한 베트남인은 2012년 57,109명, 2013년 61,247명, 2014년 79,925명으로 매년 20% 이상의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3]. 대한무역진흥공사[5]에 의하면 베트남의 GDP는 2012년 986USD, 2013년 1,028USD, 2014년 1,077USD로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베트남 전체 인구의 1%에 해당되는 호치민과 하노이의 신흥 부자세력은 약 100만명으로 이들의 1인당 GDP는 베트남 전체 평균 대비 거의 4배 높은 수준이었다[6]. 또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사람의 수도 2013년 748,727명, 2014년 832,969명, 2015년 1,152,349명으로 38.3% 이상의 증가를 보이면서 관광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14년 국적별 외국인 환자 현황을 보면 베트남인은 2012년 2,231명, 2013년 2,988명, 2014년 3,728명으로 연평균 증가를 62.7%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에 이어 6순위로 집계되었다[7]. 이처럼 한국 내에서의 베트남인의 비중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대수명 연장 및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의료산업의 경쟁과 개방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국제적 이동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8]. 201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4]에 의하면 현재 베트남 의료시장은 질적,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공공병원의 사용률은 115~250%이고 민간병원은 70%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나이가 중양 및 심장 관련 치료분야에서는 환자 과다수용, 의료장비의 공급부족 및 노후된 의료시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는 67명이고, 간호사는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여서 베트남인들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유층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싱가포르와 태국, 중국 등을 선택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중국 국경에 있는 중국병원을 이용하고 있다[6,8].

의료관광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의료관광 서비스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9]와 의료관광 상품에 대한 인식도와 이용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10]가 주로 수행되었으며 베트남인의 의료관광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게 수행되었다. 매년 3만명 정도의 베트남인이 치료를 위해 외국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고 있고 이들의 지출규모는 약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4]. 특히, 베트남인은 성형과 치과치료에서 한국을 세계 제일로 인정하고 있어 베트남인

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을 본격화 하면, 싱가포르, 태국 등을 찾던 베트남의 VIP 환자들을 한국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전에는 비자발급 등의 어려움으로 베트남인의 한국 의료관광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점차 비자발급이 용이해지고 있고 베트남과의 항공편 증설 및 항공사간 가격경쟁으로 베트남인들의 국내 유입 기회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인의 한국 의료관광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이용의도에 어떠한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실제적인 검증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용의도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이용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이용자가 하고자하는 행동을 실행할 가능성이므로 소비자가 겉으로 표출하지 않고 마음으로 계획하는 마음의 행동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11]. 따라서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앤더슨이 제안한 행동모델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12]. 앤더슨 모델은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소비자의 건강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 요인(predisposing factors), 가능 요인(enabling factors) 및 필요 요인(need factors)으로 설명한다. 아직까지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앤더슨 모델을 적용하여 그들의 한국 의료관광 이용의도를 분석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인의 한국 의료관광 이용의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유용한 모델인 앤더슨 모델을 적용하여 베트남인의 의료관광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성과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의료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선행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에 따른 이용의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확인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관광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한 서술적 상관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베트남의 호치민과 하노이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남녀 베트남인 중에서 연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정 대상자 수 분석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15, 독립변수 14개로 하였을 때 적정표본수는 135명으로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200명을 연구에 포함하였고 최종적으로 173명을 분석하였다.

## 3. 용어정의

### 1) 의료관광 이용의도

의료관광이란 첨단 의료시설과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를 유치하여 치료와 함께 휴양, 레저, 문화 활동을 관광과 연계하는 성장동력산업이고[10]. 이용의도란 소비자의 예상된 혹은 계획화된 미래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념과 태도가 행위로 옮겨지고자 하는 정도이다[9]. 본 연구에서 의료관광 이용의도는 “당신은 한국의 의료관광을 이용하실 의도가 있습니까?”의 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 예, 아니오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4. 연구도구

### 1) 사회적 계층

사회적 계층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층을 이루어 나타나는 것으로 각 층은 경제적, 권력적, 명성적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3]. 사회적 계층을 측정하기 위해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I)에서 건강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여부에 사용한 계층인지도[14]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사다리 그림이 베트남 사회를 나타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맨 위쪽에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위치하고 맨 아래쪽에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 사다리 중에서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 2) 건강상태

건강상태는 본인이 자각하는 신체적, 정신적 반응으로 본 연

구에서는 2010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에서 건강상태에 따른 삶의 질과 활동제한에 사용한 눈금자 도구[15]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눈금자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상태를 100으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건강상태를 0으로 두고 자신이 느끼는 건강상태를 표현하도록 이루어졌으며 “오늘의 건강상태가 얼마나 좋고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눈금자에 선을 그어서 표시해주시시오”라는 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 3) 의료서비스 중요도

의료서비스 중요도는 의료관광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속성이다[16].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선행연구[6,17,18]를 기반으로 직접 개발하였으며 10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5점)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서비스 중요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이 분야의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학교수 3인과 간호학 석사학위를 소지한 간호사 3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의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0.8 이상이었다. 참고적으로 CVI 점수가 0.8 이상이면 내용타당도가 높다고 판단한다[19]. 또한 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정을 위하여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측정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alpha$  는 .76이었다.

### 4) 관광서비스 중요도

관광서비스 중요도는 의료관광지를 선택하는 잠재적 의료관광객들이 제공받는 관광서비스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속성이다[18].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선행연구[6,17,18]를 기반으로 직접 개발하였으며 11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5점)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광서비스 중요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이 분야의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학교수 3인과 간호학 석사학위를 소지한 간호사 3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0.8 이상이었다. 또한 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정을 위하여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측정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alpha$  는 .83이었다.

## 5.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Anderson[12]의 모델에 따라 의료관광 이용의도에 미치는 변수들을 선행 요인 5문항, 가능 요인 6문항 및 필요 요인 21문항으로 Figure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선행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 정도, 결혼 상태 및 직업을 포함하였고, 가능 요인은 한 달 소득, 외국 여행경험, 의료관광 경험, 의료관광 관련 정보획득 경로, 경험하고 싶은 한국 의료서비스 분야,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부가활동 및 건강상태로 구성하였다. 필요 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 시 중요도(한국의 국가 이미지, 전문 의료진의 수준, 의료기관의 명성, 입국절차의 간소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인적 서비스, 교통 접근성, 지인 거주 여부, 가격 경쟁력, 기타 체험 프로그램 유무)와 관광서비스 이용시 중요도(한국의 국가 이미지, 뛰어난 자연경관, 현지 전통문화 체험, 휴양 및 휴식, 현지 음식문화 및 쇼핑, 기후 및 계절, 경제적 여행비용, 숙박시설, 유희놀이시설, 교통 접근성, 안전성)를 포함하였다.

### 1) 선행 요인

선행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 직업, 건강 신념 등과 같은 개

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의미한다[12]. 연령, 성별, 결혼 상태, 교육 수준 및 직업에서 의료관광 이용의도 관련 연구는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남자보다는 여자의 의료관광 이용의도가 높고 30~39세의 의료신뢰성에 따른 의료관광 이용의도가 높으며 미혼이 기혼보다 의료관광지에 따른 이용의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다[9-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 정도, 결혼 상태가 의료관광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2) 가능 요인

가능 요인은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개인과 가족의 사회적 특성은 물론 지역사회 자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Petersen[20]은 건강에 대한 사회 문화적 위험 요인의 하나로 사회경제적 요인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의료 이용과 건강행위 등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Yoon[6]은 선진기술체험, 한류쇼핑체험, 월평균 가족수입이 의료관광 선택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Lee[21]의 연구에서도 의료서비스 경험 또는 희망 의료서비스 분야가 의료관광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Alfaro와 Ahluwalia[22]는 사회경제적 상태,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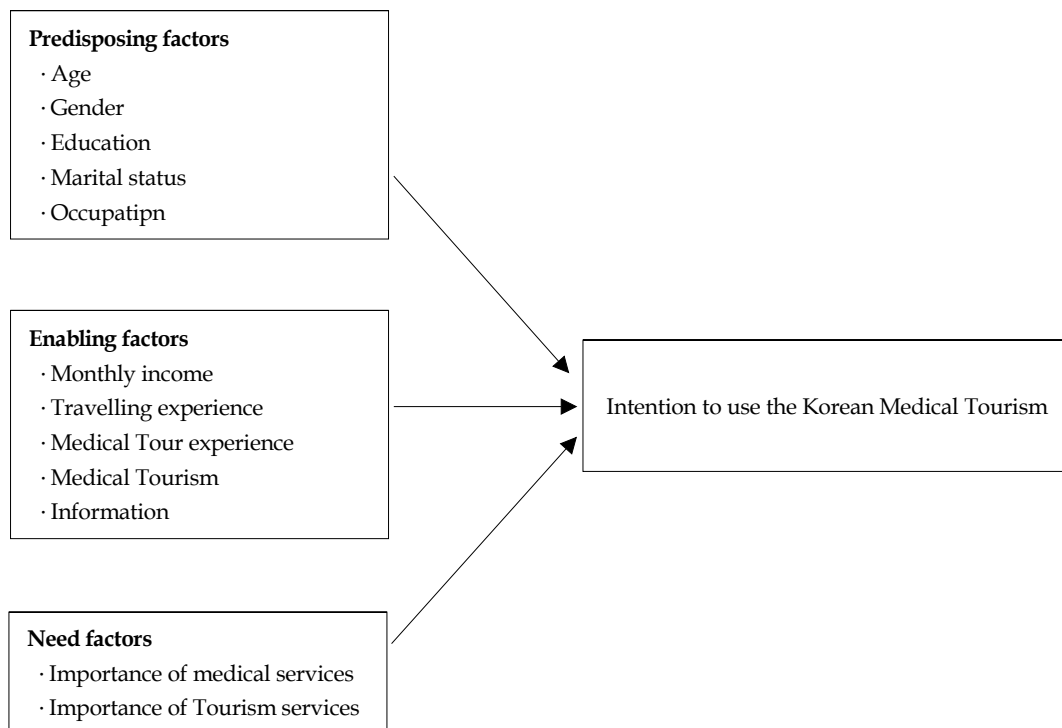


Figure 1. Influential factors of Vietnamese intention to use the Korean medical tourism based on Andersen's model.



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한계 및 재정적 요인들이 의료관광 이용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치, 월 수입, 외국여행 경험, 오늘의 건강상태가 의료관광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3) 필요 요인

필요 요인은 서비스 이용을 필요하게 만드는 개인의 장애나 질병의 수준 등 건강 관련 특성이 이에 해당된다[12]. 필요 요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개인의 의료서비스 및 관광서비스에 대한 요구 정도의 수준에 관한 변수라 할 수 있다. Jeon [9]은 의료서비스의 신뢰성이 의료관광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면서 관광서비스 및 비용도 의료관광 이용의도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았다. Yoon[6]은 관광지의 편의성이 의료관광지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의료서비스 중요도와 관광서비스 중요도가 의료관광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자료수집은 호치민에 본사를 두고 있는 BOM World Wide사의 베트남 전 지점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후, 각 지점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인에게 베트남어로 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가 기록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였으며 총 2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나 183부가 회수되어 91.5%의 응답률을 얻었고 이 중 문항에 대한 답이 성실하지 못한 10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선행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 및 이용의도는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선행 요인, 필요 요인, 가능 요인에 따른 이용의도 차이는  $\chi^2$  test,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로짓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 6. 윤리적 고려

연구 시작 전에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서 연구자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연구목적과 진행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심의결과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IRB 1041078-201508-HRSB-139-01). 연구자가 직접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를 방문하여 연구대상자에게 베트남어로 된 본 연구의 목적,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에 참여하는 동안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만둘 수 있음을 알리고 설문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으며 자료수집 후 대상자에게는 여행용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였다.

##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총 173명으로 성별은 여성 149명(86.1%)이었고, 연령은 30~39세 90명(52.0%)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36.9세이었다. 최종학력은 대학졸업이 112명(64.7%)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는 기혼이 110명(36.6%)이었다. 현재 직업은 사무직이 90명(52.0%)으로 가장 많았고, 한 달 수입은 500달러 이하 65명(37.6%)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수입은 1,278달러였다. 외국여행경험은 있다가 159명(91.9%)이고, 이 중 62명(35.8%)은 의료관광경험이 있었다. 의료관광 상품 획득 경로는 인터넷이 138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의 의료서비스 중 경험하고 싶은 분야는 건강검진이 132명(76.3%)이었으며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부가활동 선호 분야는 음식체험이 115명(66.5%)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계층은 중간층이 78명(45.1%)로 가장 많았고 오늘의 건강상태는 90점 이상이 76명(44.0%)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가 한국 의료서비스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인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4.85±0.02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지인거주여부가 3.22±0.09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국 관광서비스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여행비용이 4.92±0.0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후 및 계절이 3.28±0.08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3)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Predisposing factors	Gender	Male	24 (13.9)	36.93±7.70
		Female	149 (86.1)	
	Age (year)	≤ 29	29 (16.8)	
		30~39	90 (52.0)	
		≥ 40	54 (31.2)	
	Education	< University student	40 (23.1)	
		University	112 (64.7)	
Graduate school		21 (12.2)		
Marital status	Unmarried	63 (36.4)		
	Married	110 (63.6)		
Current occupation	Housewife	23 (13.4)		
	Office job	90 (52.0)		
	Self-employed	53 (30.6)		
	Student	7 (4.0)		
Enabling factors	Monthly income (USD)	≤ 500	65 (37.6)	1,278±118.21
		501~1,000	49 (28.3)	
		1,001~2,000	26 (15.0)	
		≥ 2,001	33 (19.1)	
	Travelling experience	Yes	159 (91.9)	
		No	14 (8.1)	
	Medical tourism experience	Yes	62 (35.8)	
		No	111 (64.2)	
	Medical tourism information	Travel agency*	44 (14.7)	
		Internet*	138 (46.0)	
		Travel guidebook, media, journal*	69 (23.0)	
		Government agency*	34 (11.3)	
		Friend, co-worker, relative*	15 (5.0)	
	Wants to experience medical services	Dentist*	35 (20.2)	
		Health screenings*	132 (76.3)	
		Korean oriental treatment*	116 (67.1)	
		Beauty skin care*	111 (64.2)	
		Plastic surgery*	52 (30.1)	
		Ophthalmology*	25 (14.5)	
		Long-term care*	24 (13.9)	
	Additional activities associated with medical services	Medicine*	44 (25.4)	
		Nature tourism and exploration*	79 (45.7)	
		History/cultural monuments*	78 (45.1)	
		Simple recreation*	62 (35.8)	
		Leisure sports*	56 (32.4)	
		Fashion shopping*	112 (64.7)	
		Food experience*	115 (66.5)	
		Entertainment*	111 (64.2)	
	Social class	The upper class	37 (21.4)	
The middle class		78 (45.1)		
The lower class		58 (33.5)		
Today's health conditions	≤ 60	23 (13.3)	79.53±0.90	
	70~79	35 (20.2)		
	80~89	39 (22.5)		
	≥ 90	76 (44.0)		

\*Multiple response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ontinued)

(N=173)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Need factors	Importance of Korea medical services	The national image of Korea		4.39±0.84
		Professional-level staff		4.84±0.03
		Reputation of the hospitals		4.49±0.05
		Simplifying entry and visa procedures		3.73±0.68
		Smooth communication		4.14±0.59
		Human services		4.26±0.06
		Traffic accessibility		3.68±0.08
		Status acquaintances residence		3.22±0.09
		Price competitiveness		4.85±0.02
	Other experience program		3.39±0.08	
	Importance of Korea tourism services	The national image of Korea		4.72±0.03
		Outstanding natural beauty		4.69±0.03
		Local tradition and culture		4.14±0.09
		Recreation and relaxation		3.70±0.07
		Local food culture and shopping		3.40±0.08
		Climate and seasons		3.28±0.07
		Economic cost of travel		4.92±0.02
		Accommodation		3.29±0.09
		Entertainment playground		3.51±0.09
Traffic accessibility			4.00±0.08	
Safety		4.66±0.04		

\*Multiple responses.

## 2. 대상자의 선행 요인, 가능 요인 및 필요 요인에 따른 이용의도의 차이

대상자의 선행 요인에 따른 이용의도를 살펴보면 선행 요인 중 연령과 직업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이용의도는 30~39세가 85명(49.1%)로 의료관광 이용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1.09, p=.004$ ). 직업은 사무직의 이용의도 있다가 90명(52.0%)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8.79, p=.032$ ).

대상자의 가능 요인에 따른 이용의도를 살펴보면 의료관광 경험여부와 오늘의 건강상태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의료관광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의도 있다가 60명(34.7%), 의료관광 경험이 없는 경우 이용의도 있다가 90명(52.0%)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8.49, p=.004$ ). 오늘의 건강상태는 이용의도 있다가 80.40±11.8점, 이용의도 없다 73.91±8.91점으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이용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2.52, p=.013$ ).

대상자의 필요 요인에 따른 이용의도에서 한국 의료서비스 중요도는 의료기관의 명성 및 브랜드, 인적서비스(친절도), 가격 경쟁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명성 혹은 브랜드는 이용의도 있다는 4.56±0.70

점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59, p=.016$ ). 인적서비스(친절도)는 이용의도 있다가 4.32±0.81점으로 인적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이용의도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t=-2.45, p=.015$ ). 가격 경쟁력도 이용의도 있다가 4.88±0.3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16, p=.040$ ). 필요 요인의 한국 관광서비스 중요도에서 자연경관과 유흥놀이시설, 교통접근성, 안정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연경관은 이용의도 있다가 4.73±0.49점으로 자연경관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이용의도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8.58, p=.014$ ). 유흥놀이시설은 이용의도 있다가 3.60±1.21점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53, p=.012$ ). 교통접근성은 이용의도 있다 4.08±1.12점으로 교통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이용의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t=-2.08, p=.046$ ). 안전성도 이용의도 있다가 4.87±0.45점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27, p=.029$ )(Table 2).

## 3. 대상자의 의료관광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의료관광 이용의도 관련요인을 선행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으로 나누어 단계별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였다. 잔차의

Table 2. Univariate Analysis of Factors

(N=173)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Yes (n=150)	No (n=23)	$\chi^2$ or t	p
			n (%) or M±SD	n (%) or M±SD		
Predisposing factors	Gender	Male	20 (11.6)	4 (2.3)	0.52	.603
		Female	130 (75.1)	19 (11.0)		
	Age (year)	20~29	21 (12.2)	8 (4.6)	11.09	.004
		30~39	85 (49.1)	5 (2.9)		
		40~49	35 (20.2)	9 (5.2)		
		50~59	9 (5.2)	1 (0.6)		
	Education	< University student	34 (19.7)	6 (3.5)	3.76	.152
		University	100 (57.8)	12 (7.0)		
		Graduate school	16 (9.2)	5 (2.8)		
	Marital status	Unmarried	82 (47.4)	8 (4.7)	3.32	.190
Married		68 (39.3)	15 (8.6)			
Current occupation	Office job	90 (52.0)	14 (8.1)	8.79	.032	
	Self-employed	30 (17.3)	9 (5.2)			
	Student	7 (4.1)	0 (0.0)			
	Housewife	23 (13.3)	0 (0.0)			
Enabling factors	Social class	The upper class	32 (18.5)	5 (2.9)	0.46	.639
		The middle class	66 (38.2)	12 (6.9)		
		The lower class	52 (30.1)	6 (3.4)		
	Monthly income (USD)	< 500	55 (31.8)	10 (5.8)	3.75	.290
		501~1,000	41 (23.7)	8 (4.6)		
		1,001~2,000	22 (12.7)	4 (2.3)		
		> 2,001	32 (18.5)	1 (0.6)		
	Medical tourism experience	Yes	60 (34.7)	2 (1.2)	8.49	.004
		No	90 (52.0)	21 (12.1)		
	Today's health conditions			80.40±11.80	73.91±8.91	2.52
Need factors	Importance of Korea medical services	The national image of Korea	4.41±0.83	4.22±0.95	-1.03	.302
		Professional-level staff	4.84±0.40	4.83±0.39	-0.15	.877
		Reputation of the hospitals	4.56±0.70	4.00±1.00	-2.59	.016
		Human services	4.32±0.81	3.87±0.87	-2.45	.015
		Traffic accessibility	3.62±1.10	4.04±0.97	1.90	.066
		Status acquaintances residence	3.25±1.25	3.04±1.26	-0.72	.470
		Price Competitiveness	4.88±0.35	4.65±0.49	-2.16	.040
	Importance of Korea tourism services	The national image of Korea	4.73±0.50	4.70±0.47	-0.27	.782
		Outstanding natural beauty	4.73±0.49	4.48±0.51	8.58	.014
		Local tradition and culture	4.19±1.16	3.83±1.23	-1.37	.172
		Local food culture and shopping	3.45±1.00	3.04±1.33	-1.74	.083
		Climate and seasons	3.31±1.05	3.13±0.92	-0.75	.450
		Economic cost of travel	4.93±0.38	4.91±0.28	-0.16	.871
		Entertainment playground	3.60±1.21	2.91±1.16	-2.53	.012
		Traffic accessibility	4.08±1.12	3.48±1.31	-2.08	.046
		Safety	4.87±0.45	4.63±0.58	2.27	.029

독립성 검증을 위해 더빈 왓슨(Durbin Watson)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1.54로 오차 간의 자기상관성은 없었다. 참고로 더빈 왓슨 통계량이 2에 가까우면 자기상관성이 없다(uncorrelated)고 본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

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4~2.34사이에 있어 다중공선성이 없었다. VIF값이 10보다 작으면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 모델은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모두 충족시켰다. Model 3에서 -2 Log Likelihood는 82.69



였으며,  $\chi^2$ 은 .26 (자유도=8,  $p=.081$ )로써 최종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 본 연구의 설명력은 Nagelkerke  $R^2=.48$ 이었으며, 모형의 분류 정확도는 91.9%로 적합하였다(Table 3).

로지스틱 회귀분석 과정은 첫 단계에서 선행 요인의 연령, 직업을 이용의도에 회귀시켰으며(Model 1), 두 번째 단계에서 가능 요인의 의료관광 경험 유무, 건강상태를 이용의도에 회귀시켰고(Model 2),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필요 요인의 의료기관의 명성, 인적서비스, 가격경쟁력, 자연경관, 유흥놀이시설, 교통접근성, 안전성을 이용의도에 회귀시켰다(Model 3).

Mode 1에서 의료관광 이용의도는 18.0% 설명력을 보였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연령이었고, 40세 이상의 승산비(Odd Ratio)가  $OR=3.21$  ( $p<.018$ )으로 39세 이하보다 3.21배 정도 의료관광 이용의도가 높았다. 선행 요인과 가능 요인을 고려한 Model 2는 의료관광 이용의도 변이의 28.6%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의료관광 경험이 있는 경우와 건강상태였다. 의료경험이 있는 경우의 승산비는  $OR=6.79$  ( $p=.034$ )으로 의료관광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의료관광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의도가 6.7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승산비는  $OR=1.06$  ( $p=.026$ )으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이용의도가 1.06배 높았다. 선행 요인, 가능 요

인, 필요 요인을 고려한 Model 3는 의료관광 이용의도의 변이를 총 48.5% 설명하였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의료관광 경험, 인적서비스, 자연경관이었다. 의료경험이 있는 경우의 승산비는  $OR=18.70$  ( $p=.012$ )으로 의료관광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의료관광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의도가 18.70배 높았다. 의료서비스에서 인적서비스의 승산비는  $OR=1.89$  ( $p=.014$ )로 인적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이용의도가 1.89배 높게 나타났다. 관광서비스의 자연경관 승산비는  $OR=4.30$  ( $p=.033$ )로 자연경관이 좋을수록 이용의도가 4.30배 높았다 (Table 3).

## 논 의

본 연구를 통해 베트남인이 한국의 의료관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관련 정보를 인터넷(46.0%)를 통해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의료관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선호 지역의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Park[23]과 Yoon[2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의료관광 관련 정보는 주로 친구나 동료로부터 얻고 있다

**Table 3.** Result of Stepwise Logistic Regression on Intention

(N=173)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odel 1		Model 2		Model 3	
			$\beta$ ( $p$ )	Odds ratio	$\beta$ ( $p$ )	Odds ratio	$\beta$ ( $p$ )	Odds ratio
Predisposing factors	Age (year)	$\leq 39$		1		1		1
		$\geq 40$	1.16 (.018)	3.21	0.61 (.321)	1.84	0.82 (.374)	2.27
	Current occupation	Office job		1		1		1
		Self-employed	-20.42 (.998)	<.001	-19.63 (.998)	<.001	-18.82 (.998)	<.001
Student		-19.11 (.998)	<.001	-19.08 (.998)	<.001	-18.60 (.998)	<.001	
	Housewife	0.93 (.100)	3.91	-0.68 (1.000)	.506	-0.74 (1.000)	0.42	
Enabling factors	Medical tourism experience	No		1	1.91 (.034)	1	2.92 (.012)	1
		Yes				6.79		18.70
	Today's health conditions				0.06 (.026)	1.06	0.05 (.205)	1.05
Need factors	Medical services	Reputation of the hospitals					0.48 (.341)	1.62
		Human services					0.64 (.014)	1.89
		Price competitiveness					1.13 (.099)	3.10
	Tourism services	Outstanding natural beauty					1.45 (.033)	4.30
		Entertainment playground					-0.17 (.602)	0.83
		Traffic accessibility					0.24 (.497)	1.27
		Safety					-1.56 (.075)	0.20
-2 Log Likelihood			117.78		106.40		82.69	
Chi-Square (a) $R^2$			.09		.15		.26	
Nagelkerke $R^2$			.18		.28		.48	

고 분석한 Yang[25]과 Jeon[9]의 연구와 의료기관 방문 경로는 지인 소개이고 의료관광 전문 에이전시를 통한 방문이 가장 낮게 나타난 Lee[21]의 연구결과와 다소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비자발급 등의 어려움으로 타국에 비해 한국의 의료관광을 경험한 베트남인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친구나 동료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에 한계가 있어 보이며, 의료관광 관련 정보를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는 베트남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의 베트남어 언어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고 사료된다.

또한 베트남인이 한국의 의료서비스 중 경험하고 싶은 분야는 건강검진이 132명(76.3%)이었다. 대상자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인이 선호하는 의료관광분야는 미용성형, 한방 건강검진 순으로 나타났던 Jeon[9]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일본인은 건강검진과 같은 가벼운 치료활동을 선호한다는 Kim[26]의 연구와는 일치하였다. 이는 타국과 비교했을 때 베트남인이 선호하는 의료관광 서비스 분야가 다름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베트남인을 위한 건강검진 부분의 집중적인 인적서비스 투입 및 질적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단변량분석에서 나타난 의료관광 이용의도에 차이를 보인 모든 변수를 단계별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Model 3 결과, 선행 요인에서는 변수의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연령 및 직업이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대상국가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Lee[27]는 이용의도가 연령에 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직업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 Park[23]은 연구를 통해 태국을 선호하는 의료관광객은 주부이고, 중국을 선호하는 의료관광객은 전문직이며 직업군에 따라 이용의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Jeon[9]과 이정화[28]의 연구를 통해 연령, 성별이 의료관광상품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연령 및 직업은 이용의도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연령과 직업에 대한 이용의도의 관계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능 요인에서는 의료관광 경험 유무가 의료관광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료관광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의도가 더 높다고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의료관광 경험이 있는 경우 의료관광지와 의료관광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이용의도가 높다고 보고한 Jeon[9]과 의료관광 경험을 한 환자가 병원을 재선택 할 때 서비스 만족의 정도

가 병원 재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Yang[25]의 연구, 방문경험이 있는 관광객은 인지적, 정서적, 총체적 이미지 평가에서 더욱 호의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고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한 Ahmed[2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의료관광 속성상 의료관광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의료관광을 재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의료관광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의 추천이나 경험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의료관광 잠재고객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필요 요인에서는 의료서비스 중요도의 인적서비스와 관광서비스 중요도의 자연경관이 의료관광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인적서비스 및 의료기술이 불충족되었을 때 의료관광객들의 불만족을 야기시켜 이용의도가 저하된다고 보고한 Lee[21]의 연구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서비스 정도가 의료관광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Yang[25]의 연구 및 건강과 관련 있는 아름다운 자연자원이 의료관광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한 Kim[11] 연구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중국인은 의료관광 상품을 선택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 의료기술의 신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Jeon[9]의 연구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의료기술보다도 인적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된 Yom[1]의 연구와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이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친절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Kim[11]의 연구, 편안하고 친절한 인적서비스를 통하여 베트남 고객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고 보고한 Huyhungnguyen[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자연경관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베트남 잠재 관광객의 한국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한 Yoon[6]과 베트남인들의 한국관광 선택 속성에 대한 차이를 보고한 Chung[18]의 연구에서 관광자원의 매력성이 선택의도에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나타낸다고 주장과 일치한다. 이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자연경관이 가을이 짧고 겨울에도 거의 눈이 오지 않는 베트남과는 큰 차이를 보여 베트남인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의료서비스 이용한 후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충분한 휴양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의료관광 경험이 있을수록, 의료서비스 중 인적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방문국가의 자연경관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의료관광 이용의도는 높았다. 따라서 의료관광 경험, 의료서비스의 인적서비스, 관광

서비스의 자연경관이 의료관광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이용의도에 있어서 선행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 중 이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요 요인이었고, 선행 요인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선행 요인에 새로운 변수로 개인적 결정인자를 추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필요 요인과 관련이 있는 분야, 즉 인적 서비스와 자연경관 관련 분야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인적 서비스를 높이는 방안을 세밀하게 탐색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는 앤더슨 모델을 적용하여 의료관광 이용의도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 결론

본 연구는 앤더슨 모델을 적용하여 베트남인의 의료관광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파악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 의료관광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변수는 가능 요인으로 의료관광 경험과 필요 요인으로 의료서비스 중요도의 인적서비스, 관광서비스 중요도의 자연경관이었다. 즉, 의료관광 경험이 있을수록, 의료서비스에서 인적서비스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관광서비스에서 자연경관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의료관광 이용의도가 높았다. 특히 선행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 중 의료관광 이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필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베트남인의 한국 의료관광 이용의도를 일반적인 실증적 조사가 아닌 앤더슨 모델에 근거하여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새로운 측면으로 한국 의료관광 이용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방한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실행하였던 선행연구와 다르게 한국 방문 경험이 전혀 없는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전략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한국 의료관광 시장의 주요 고객층으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인의 의료관광 이용의도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 및 국가 성장 동력 산업인 의료관광 영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이라 사료된다. 추후 한국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다양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고 각 연구결과를 비교 종합하여 의료관광의 활성화 및 선진의료관광국으로서의 자매리깅에 기여할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1. Yom YH, Kim MA, Han JH. Factors influencing Chinese customers' loyalty to Korean medical and tourism servi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5;21(3):317-326. <http://dx.doi.org/10.11111/jkana.2015.21.3.317>
2. Goodrich JN, Goodrich GE. Health-care tourism-an exploratory study. *Tourism Management*. 1987;8(3):217-222. [http://dx.doi.org/10.1016/0261-5177\(87\)90053-7](http://dx.doi.org/10.1016/0261-5177(87)90053-7)
3. Korean Tourism Organization. Korea tourism statistics (1975-2015) [Internet]. [cited 2012.02.27]. Available from: <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status/profit/board/view.kto?id=379522&isNotice=true&instanceId=294&num=0>
4.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Vietnam health care industry advanced environment, medical services publications [Internet]. Seoul: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updated 2012 Feb; cited 2015.02.07]. Available from: <https://medicakorea.khidi.or.kr/Index.aspx#>
5.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Vietnam Investment News [Internet]. Seoul: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cited 2015 09 04]. Available from: <http://news.kotra.or.kr/user/extra/kotranews/search/index/jsp/Page.do>
6. Yoon JH, Chung HS, Lee YJ. An analysis on selective attributes influencing on behavioral intention of Vietnamese to choose Korean tourism.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2012;42:259-273.
7.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Statistics on international patients in Korea, 2014. Cheongju: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5.
8. Nguyen HH. A research of foreign medical tourism service attitude and customer satisfaction [master's thesis]. Jecheon: Seomyung University; 2012.
9. Jeon IS, Min DK, Lee KS. Study on the Chinese's selection attributes of Korean medical tourism products. *Tourism Institute of Northeast Asia*. 2012;8(3):259-281.
10. Yoo SG. A study on foreign tourists'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medical tourism products in Gangwon area. *Tourism Institute of Northeast Asia*. 2014;10(3):109-135.
11. Kim MS, Bang HY. The determinant factors of purchasing intention of foreign medical tourist. *Korea Trade Review*. 2014; 39(1):43-76.
12. Andersen RM. Revisiting the behavioral model and access to medical care: does it matt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95;36(1):1-10.
13. Jang IC, Han JY. Sport Participation form and degree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stratification in Korea.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2014;27(3):67-87.
14. Jung YH, Ja KS, Son CK, Kim EJ, Seo NK, Han EJ, et al. A report

- on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of 2009 (III).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p. 159-169.
15. Jung YH, Ja KS, Son CK, Kim EJ, Seo NK, Hwang YH, et al. A report on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of 2010 (II)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16. Chang YH, Oh IK, Shin DS. Perceptions and preference attributes of Korean medical tourism by Chinese college student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016;30(2):35-46.
  17. Shine EK, Seo SY. The empirical study on the preference country for medical tourism by disease type -focused on Indonesia potential medical tourists.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2015;9(3):15-24.
  18. Chung HS, Yoon JH. An analysis on the differences of choice attributes of Vietnamese to choose Korea as a tourism dest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013;27(5):335-349.
  19. Lynn MR. Determination and quant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Nursing Research*. 1986;35(6):382-385.
  20. Petersen PE. Sociobehavioural risk factors in dental caries - international perspectives. *Community Dentistry and Oral Epidemiology*. 2005;33(4):274-279.  
<http://dx.doi.org/10.1111/j.1600-0528.2005.00235.x>
  21. Lee EM, Lee GH. Revised IPA applying Kano Model on the selection attributes of Korean inbound medical tourism.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010;22(5):111-130.
  22. Alfaro DP, Ahluwalia KP. Oral care needs, barriers and challenges among community dwelling elderly in New York State and northern Manhattan. *The New York State Dental Journal*. 2010;76(5):38-41.
  23. Park JS. A study on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image and motivation by tourism destinations. *Journal of Korea Service Management Society*. 2007;8(4):137-153.
  24. Yoon SM, Kim GJ.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edical tourism motivations on medical tourists purchasing attitude: Focused on inbound Japanese tourists.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012;24(1):121-147.
  25. Yang X, Choi SM, Moon TS. An empirical study on service quality and usage intention of medical tourism in Korea. *The Journal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2013;13(3):185-205.
  26. Kim MK, Kim BK. The comparison of participation intention and selection attributes of medical tourism to Korea between Japanese and Chinese.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2011;16(2):43-63.
  27. Lee HS. Health status and utilization of long-term care facility in the urban and rural age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8;19(2):260-269.
  28. Lee JH. A study on the interactive relations between the importance of the attributes of medical tourism selection by Japanese tourists visiting Korea and those tourists' intent to use the tourism [master's thesis]. Busan: Donga University; 2010.
  29. Ahmed ZU. The influence of the components of a state's tourist image on product positioning strategy. *Tourism Management*. 1991;12(4):331-340.  
[http://dx.doi.org/10.1016/0261-5177\(91\)90045-U](http://dx.doi.org/10.1016/0261-5177(91)90045-U)